

SK에너지, 한센인 복지기금 8000만원 지원

SK에너지가 한센인을 위한 SK행복날개기금으로 8000만원을 지원한다.

SK에너지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국립소록도 병원에서 SK에너지 신현철 부회장과 사단법인 참길복지이재우 대표,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송영수 전남지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지원기금 전달식을 갖고 1년간 소록도병원의 진료 장비와 한센인 정착촌 2-3세의 학자금 등을 지원해 총 65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.



SK에너지의 한센인 지원은 2008년 3년째를 맞아 총 2억 6000만원이 전달돼 한센인 치료를 위한 이동식 진료장비와 소록도 주민 비품 지원, 재가 및 정착촌 한센인 2-3세의 장학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.

SK에너지 신현철 부회장은 “전체 한센인의 90%에 달하는 1만5000여명의 정착촌 및 재가 환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법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”이라며 “SK에너지는 한센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3년째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8/06/16>